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金莊坤 이사장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실

일자 : 8월 6일 오후 4시

# “원자력발전 국민이해로 풀어야죠”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단순히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원자력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 가겠다”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장곤이사장.

김이사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룬 공생공영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구현하기 위해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력수요의 3분의 1 공급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전력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가져다주는 혜택보다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일부의 다분히 감성적인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원자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임직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

회적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제3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투명한 원자력 국민이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중요한 동력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참 모습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김이사장님께서서는 원자력과 동떨어진 주로 정치분야에서 일을 해오

신 것으로 압니다. 언제부터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원자력사업에 대해 밖에서 보신 것과 안에서 보신 것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정치는 국민민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저는 항상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원자력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사회갈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체감 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재단에 몸담은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보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원자력의 이미지와 원자력의 실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 곳에 몸담기 전에는 웬지 불안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못했지만 막상 재단에 와서 원자력발전 시스템을 하나하나 접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자력 국민이해사업은 이러한 일반인의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원자력 국민이해사업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계발·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원자력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3월 23일 발족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이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신 일 가운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요.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 지역사회와 조화·共生共榮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92년 설립 후 원자력발전의 참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원자력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이해사업, 문화행사나 이벤트를 펼치는 문화진흥사업, 차세대에게 올바른 원자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차세대교육사업, 원자력과 지역사회의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지역협력사업,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국제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전의 추가건설에 대해서도 60%가 찬성하는 등, 그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현격한 인식의 전환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우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단이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론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즉 90% 이상의 국민이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지역내 원전건설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원자력사업은 지역주민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원자력발전이 석유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국민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金莊坤이사장(우측)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에게 원자력 국민이해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생공영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의 지방문화행사를 적극 지원,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IMF 경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문화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8월 1일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와 이웃해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과 부산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이 지역주민과 원전 종사자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해변가요제를 개최한데 이어, 8월 8일에는 경북 월성에서 그리고 8월 16일에는 울진에서 이같은 지방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 재단은 원자력발전소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문화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개최하여 원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 원자력사업은 지역주민의 이해(利害)와 국가 에너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과 연결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를 풀어 가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산하기관 구조 조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역할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를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국민불안 해소에 최대 역점

원자력발전은 최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 문제 때문에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원자력발전이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원자력발전 국민이해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인력도 총 정원의 85% 수준에서 운용하여 왔으며,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 계급정년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동안 실시된 사업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국민이해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자나 일반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력을 발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기간 중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업역량을 키우는데 최대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홍보사업을 펼쳐 나가겠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과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자력 관련 홍보는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자력 홍보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자력을 흔히 첨단과학의 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원자력을 잘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선진국들입니다.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국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첨단 과학기술을 갖춘 국가만이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빨리 원자력사업을 시작했고, 그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원자력문화의 진흥도 국민의 과학적 소양이 높을수록 빨리 꽃피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학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원자력 국민이해사업을 펼쳐가겠습니다. ①7